

②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

막강파워 국가혁신체제의 핵 ‘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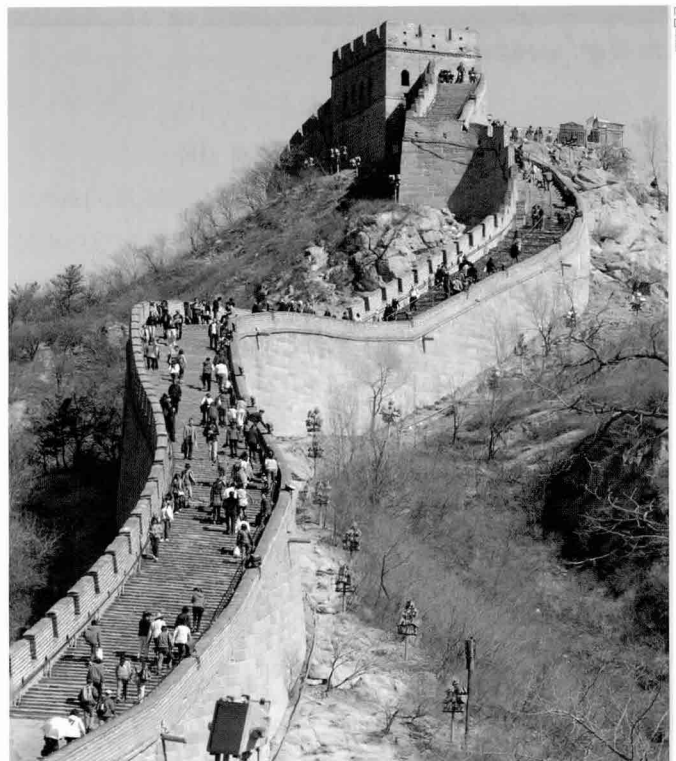
글 | 홍성범 _ 한중과기협력센터장 sbhong@stepi.re.kr

매년 연초가 되면 중국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교육부, 국방과기
공업위원회,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국가자연과학기금위
원회, 중국과학기술협회 등 관련 중앙기관과 각 직할시의 과학기술
위원회와 각 성의 과학기술청 주요 인사들이 모여 전년도의 과학기
술정책 및 과학기술발전현황을 되짚어보고, 그 해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국과학기술공작회의’가 개최된다.

‘과기교육영도소조’에서 과기정책 종합조정

2003년부터 이 회의에서의 화두는 ‘소강’과 ‘과월’의 2가지 단
어로 집약되고 있다. 2002년 11월, 제16차 공산당대회에서 제기된
‘소강단계로의 발전’은 현재 중국의 모든 정책추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강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온포의 다
음 단계의 사회로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의 예
기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는 이러한 소강사회를 초급이상사회로 보
았고, 궁극적인 이상사회로 대동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현
재를 소강 초기단계로 평가하면서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완성하
려는 발전전략을 추진 중이다.

2003년도 전국과기공작회의에서 서관화 과학기술부장은 중국
의 기술발전이 ‘근중(추격하기)’에서 벗어나 ‘과월(뛰어넘기)’로 변
화했다고 선언하였다. 그 동안 중국이 추진해온 모방전략에서 벗어
나 이제는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거나 대등한 입장에서 성과를 내
는 혁신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02년을 전환점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의 랜드마크인 만리장성

고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에
과학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과학기술부는 그 임
무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진흥, 과기인력양성, 첨단기술개발,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실용화, 상업화, 산업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지역발전,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가진다. 제4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은 863계획을 통해 과기부가 총괄하고, 중의약 기술발전도 과기부 몫이다. 화거계획을 통해 전국 53개 국가급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조성과 운영도 과기부가 담당한다. 성화계획을 통해 농촌지역의 재교육 및 향진기업의 발전도 과학기술부 프로그램이다. 중국 각부처의 조직도를 보면 흥미를 끄는 부분이 과학기술사(‘사’는 한국의 ‘국’에 해당)이다.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과학기술사’는 과학기술부와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전체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차원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과학기술부가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과기정책의 종합조정은 ‘과기교육영도소조’를 통해 이뤄진다. 조장(위원장)은 총리이고, 부조장(부위원장)은 교육과학 담당 국무위원이다. 구성원으로는 과학기술부장, 재정부장, 교육부장, 중국과학원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과기정책에는 종합조정이란 말이 필요치 않다.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과기부가 전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3월, 그 동안 기술개조문제를 다뤘던 국가경제무역위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통합되어 상무부로 개편되면서 통상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무역위 안에 있던 산업 및 기술 관련 부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대부분 이관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의 내의 산업정책사, 공업사, 고기술산업

사 등 국 단위에서 거시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금은 공업정보화부로 통합되었지만 과거 신식산업부는 유무선통신 운영부문만을 전담하였다. 예를 들면 제4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은 과기부가 맡고 있다.

중국 과기부는 기초연구, 첨단기술개발, 기술상업화, 지역발전, 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기술개발사슬의 전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즉 국가혁신체제의 실질적인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등소평이 제시한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이다. 경제건설은 반드시 과학기술에 의지하고 과학기술은 반드시 경제건설을 위해야 한다”라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 관련 조직 큰 폭 개혁

2008년 3월 이전까지 과학기술정책 관련 부서에는 거시관리를 위주로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와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 상무부, 교육부, 철도부, 농업부, 국방부, 위생부, 건설부, 수리부, 국토자원부, 신식산업부, 교통부, 재정부 및 전문 국단위기관 등이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구 국가발전계획위)는 산하에 산업정책사, 고기술산업사, 공업사 등이 거시 기술정책 담당하고 있고, 상무부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통합되면서 통상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과기발전 및 기술무역사에서 기술무역 및 무역표준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신식산업부(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보다 표준 및 운영사업자관



이번 개편에 새로 설립된 공업화신식화부



국무원조직 개편, 공업정보화부 신설

2008년 3월 15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 제1차 회의에서는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관리기구조 고위급 정책조정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아울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국가에너지국을 설립하여 기존 국가에너지영도소조판공실의 업무,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원자력발전 관리 업무와 통합하여 국가에너지국에 편입시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공업부문 관리 관련 업무,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원자력발전 관리 이외의 업무, 정보산업부와 국무원정보화업무판공실의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는 공업정보화부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국가국방과학기술국을 공업정보화부 산하에 설립하였고, 국가연초전매국을 공업정보화부가 관리토록 하였다.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정보산업부, 국무원정보화공작판공실은 폐지되었다.

교통부, 중국민용항공총국, 건설부의 도시여객 운송업무를 통합하여 교통운수부가 설립되었다. 중국민용항공총국은 교통운수부 산하 국가민용항공국으로 편입되었고, 국가우정국도 교통운수부로 통합되었다. 단 애초에 계획되었던 철도부는 존속시키되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존치되어 한계를 노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인사부, 노동사회보장부를 통합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신규로 설립하였다. 국가공무원국도 산하에 신규 설립되었다. 기존 국가환경보호총국을 부로 승격시켜 임무와 권한을 확대시켰으며, 기존 건설부를 확대, 개편하여 주택 및 도시향촌건설부를 신설하였고, 국가식품약품관리국을 위생부 산하 기구조 개편하여 위생부가 식품안전종합조정을 담당하고, 식품안전중대사고는 국가식품약품관리국에서 담당하도록 임무를 명확히 하였다.

2008년 3월 국무원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업정보화부의 신설이다. 중국이 직면한 과제인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첨단기술과 전통공업 개조 간의 연계를 촉진시켜 공업의 질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업정보화부의 주요 기능은 산업기술정책과 표준제정, 중대기술장비의 발전과 자주 혁신 촉진, 정보화 건설 및 국가의 정보안전 수호 등이다. 2008년 3월, 국무원조직기구 개혁에 따라 신규 설립된 부서 외에 기존에 존속된 과학기술 관련 조직들은 국방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토자원부, 수리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등이 운영되고 있다. 57



글쓴이는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정부차원의 한·중 기술협력프로그램 기획, 기술경쟁력, 기술이전 등 중국과 관련 연구를 해왔다. 중국 과학발전촉진연구중심 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을 거쳤다.